

#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

(문성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236
----------	------

발의 년 월 일: 2025년 10월 20일  
발의자: 문성호, 강석주, 고광민,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남궁역, 민병주,  
서상열, 신복자, 심미경,  
유만희, 윤기섭, 이상욱,  
이성배, 이종태, 이종환,  
임춘대, 채수지, 최민규  
의원(27명)

## 1. 주문

- 캄보디아 정부에 공식적으로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해 강력 항의할 것을 건의함
- SNS 및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 등지에서의 납치 유도 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단속 특별 수사 기구 설치를 건의함
- 직접 경찰에 연락해라’, ‘오픈 전 이니 나중에 와라.’식으로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한 해당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에 대해 직무 해제할 것을 건의함

## 2. 제안이유

- 2023년 6월 6일, 인터넷방송인 변아영 씨가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칸달성의 한 연못가에서 전통 돛자리에 싸여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은 지 2년 뒤,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된 여성이 극적으로 박찬대 국회의원실로의 연락에 성공하여 캄보디아 캄퐁 주 보코산에서 구출되는데, 현장에는 무려 13명의 한국인이 감금된 상태로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함

- 한 청년은 캄보디아에 은행 통장을 팔면 고액을 벌 수 있다는 꿈에 넘어가 캄보디아로 넘어갔으나 곧바로 납치 감금당한 후 마약 강제 투여까지 당했으며, 지난 8월 범죄조직의 아지트에서 숨진 채 발견 되는가 하면, 마찬가지로 자영업을 하던 40대 남성도 은행 통장 매매 사기에 넘어가 캄보디아에 방문했다가 납치당하는 사건도 발생함
- 다행히 자영업을 하던 40대 남성은 비밀로 숨겨두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구조를 요청했으나, 대사관 측은 “현지 경찰에 직접 신고하라.”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놓았으며, 해당 남성은 이에 낙심하지 않고 건물 6층에서 4층 발코니로 뛰어내린 후 도망쳐 직접 목숨을 걸고 대사관을 찾아감. 하지만 대사관 측은 “근무 시간이 아니니 근무가 시작된 뒤 방문하라.”라는 더욱 황당무계한 답변을 내놓고, 해당 남성은 살고자 하는 절실함에 쓰레기더미에 몸을 숨겨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실이 전해져 온 국민이 충격을 금하지 못하고 있음
- 베트남 축구의 전설 박항서 감독 역시 캄보디아를 방문했다가 택시를 활용한 한국인 납치를 당한 적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지면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표적으로 한 사기, 납치, 감금, 고문, 범죄 연류 강요 등 심각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에 공식적으로 이러한 범죄에 대한 강력 항의를 전함과 이러한 범죄 수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목적의 모니터링 및 특별수사기구의 설치, 국민의 생명을 등한시한 해당 대사관 직원의 직무 해제를 건의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등

### 4. 이송처

- 대한민국 정부 / 대한민국 외교부 / 대한민국 국회

#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여름,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성의 한 연못가에 대한민국 인터넷방송인 변아영 씨가 캄보디아 전통 둑자리에 싸여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캄보디아에 납치된 여성의 극적으로 부친과의 연락에 성공하면서, 박찬대 국회의원실에 도움 요청이 전달됨에 따라 캄보디아 캄퐁주 보코산에서 구출되었는데, 현장에는 연락에 성공한 여성에 대해 무려 13명의 한국인이 감금된 상태로 발견되고 시체 두 구도 나오는 충격적인 사건이 전해졌습니다.

한 청년은 캄보디아에 개인 은행 통장을 고액에 판매할 수 있다는 꿈에 넘어가 캄보디아로 넘어갔으나 곧바로 납치 감금당한 후 마약 강제 투약까지 당했으며, 결국 마약에 의해 탈출도 어렵게 만들어진 청년은 지난 8월 범죄조직의 아지트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영업을 하던 40대 남성도 은행 통장 매매 사기에 넘어가 캄보디아를 방문했다가 납치당했으며, 다행히 비밀로 숨겨두었던 휴대전화를 통해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구조를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사관 측은 “현지 경찰에 직접 신고하라.”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놓으며 마땅히 도와야 할 재외국민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이에 낙심하지 않고 감금되어 있던 건물 6층에서 4층 발코니로 뛰어내린 후 도망쳐 직접 목숨을 걸고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직접 목숨을 걸고 탈출에 성공해 찾아간 그에게 대사관은 “아직 근무 시간 전이니, 나중에 근무가 시작되면 오라.”라는 식으로 또 한 번 마땅히 지켜야 할 재외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했습니다. 결국 해당 남성은 쓰레기더미에 몸을 숨어 가까스로 생존에 성공했다는 이 어처구니없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많은 국민이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축구의 전설 박항서 감독 역시 캄보디아를 방문했다가 택시를 활용한 한국인 납치를 당한 적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전해지면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표적으로 한 사기, 납치, 갑금, 고문, 범죄 연류 강요 등 심각한 범죄가 일어지고 있는 와중에 대한민국 대사관은 제 역할도 다하지 못한 무능한 기관으로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0월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캄보디아 현지 경찰들의 부패는 심각한 상황이어서 범죄조직에 납치됐다가 가까스로 풀려난 피해자는 현지 경찰로부터 범죄조직과 “당신은 돈을 못 갚은 채무자여서 잠시 끌려갔던 것이고, 폭행은 전혀 없었다.”라는 허위 합의서를 쓰게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캄보디아 대사에게 우려를 표방한 수준으로는 절대 안심할 수 없어 우리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에 명확하게 강한 항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이는 캄보디아 현지로 급파된 정부 합동 대응팀에 캄보디아 정부가 확실하게 협조하고 부패한 무능 현지 경찰에게도 “대한민국 국민은 무조건 생활시켜야 한다.”는 경고를 하여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욱 도모할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확실합니다.

또한 불특정 여행객 납치를 제외한 이러한 표적 범죄는 주로 사기와 유인으로 인한 원인이 존재하기에, SNS 또는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 등지에서 통장 매매가 분명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고액으로 매매한다는 사기를

통해 현혹해 유도하는 방법과 캄보디아에서 현지 일자리 알선 혹은 이른바 ‘고액알바’ 홍보를 통한 사기 유인이 유포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유사시 수사가 가능한 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은 아래와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캄보디아 정부에 공식적으로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해 강력 항의해 주십시오.

둘째, SNS 및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 등지에서 납치 유도 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단속 특별 수사 기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셋째, 도움이 필요한 재외국민의 요청을 등한시한 해당 주캄보디아 대한 민국 대사관 직원을 직무 해제해 주십시오.

2025. 1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